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4.(월) 15:00 배포 2023. 12. 4.(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정부는 12월 4일(월)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산업부, 12.4)를 포함하여,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sjoh10@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4935)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서기관	김성건 (044-203-5691)
담당 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rho7904@korea.kr)
		담당자	주무관	진우섭 (wsjin92@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강여울 (02-2100-7675)
		담당자	사무관	신지현 (jhshin16@korea.kr)
담당 부서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담당자	사무관	김정순 (kimj@korea.kr)
담당 부서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현정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42-481-78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